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읍시가 지난 18일과 17일 양일간 시 소속 현업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한 작업환경, 과중한 업무와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백현찬 강사는 'Cheer Up Mind'라는 주제로 직무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이론교육을 했다.

비교육연구소 박혜인 강사는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명상법, 웃음운동법, 스트레스 해소 호흡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대처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행안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양·안전교육

부안군 행안면은 최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치매인식개선·예방) 및 안전교육,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인 '활동시간' 및 안전수칙 준수,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했으며 교육 후 활동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안면 관계자는 "간담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항상 소통하는 행안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려청자 학술조사·연구 본격화

부안군·완주문화재연구소, 협약 체결... 준비과정 거쳐 개도제 개최

부안군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6월 부안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대행(위·수탁)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17일 개도제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963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부안 유천리·진서리의 고려청자 가마터(窯址)는 39만 5021㎡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13개 구역 77개소의 가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은 부안 고려청자 요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 문화재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5년간의 장기 학술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국립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

해 한국 중세문화의 절정인 부안 고려청자의 진정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부안 고려청자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안 고려청자 유적과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고려 중기 삼강청자의 매카인 부안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정밀 조사를 통해 가마터가 남아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구역 해제 및 축소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60년간 지속되었던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삼남대로 갈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삼남대로 갈재, 정읍 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활용 방안 모색

정읍시가 삼남대로 갈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삼남대로 갈재 기초 및 현장조사 △옛길 활용 사례검토 △정비계획 기본구상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주변 지역의 자원과 연계·활용 등을 담았다.

이번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문가, 주민 등 15명과 용역사 3명이 참석한 삼남대로 갈재의 정비계획,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마련한 정비계획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삼남대로 갈재의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입암면 등천리에 위치한 삼남대로 갈재는 고려시대 흥종이 나주로 몽진

할 때 이용한 이래 정읍과 장성을 연결하는 삼남대로의 대표적 고갯길로 '신증동국여지승람', '호남읍지', '동여도' 등 지리지, 고지도, 문헌에 기록돼 역사적 가치가 큰 옛길이다.

과거 불길과 흉일의 원형이 남아있고 옛길 상에 다양한 문화유산과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2021년 12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학수 시장은 "삼남대로 갈재는 과거 선조들의 발자취가 느낄 수 있는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우리시의 대표 문화유산이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보존·정비 계획이 잘 수립돼 정읍시의 대표적인 역사·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성료

미디어파사드·야간 경관·드론 라이트쇼 등 가을밤 별빛 기행 흥행... 3만6000여명 방문

고창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2023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9월15~10월14일)에 3만6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대비 5배가 늘어나며 "고창군 야간 관광콘텐츠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돌 미디어아트는 별뿔뿔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삼천년의 시간여행·별빛기행'을 주제로, 깨어나는 고인돌 시간의 다리, 영감의 선사마을 등 11개 구역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자연 그대로의 고인돌 유적을 활용한 메인 미디어파사드는 생동감 있는 음향, 화려한 조명과 함께 5200

㎡의 압도적인 크기의 대형 콘텐츠가 연출되어 많은 관광객의 탄성과 감동을 자아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상호작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션 콘텐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탐신책, 고인돌유적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로 깊어가는 가을밤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첨단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접목해 고창 고인돌 유적을 재해석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배, 올해 첫 미국 수출 길 올라

전국 최고의 당도와 맛감을 자랑하는 고창배가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고창배 영농조합법인(대표 심정식)은 17일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대미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실시하고 수출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 물량은 고창지역 33개 배농가가 정성스럽게 키운 신고배 13.8톤(약 400만원)이며,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약 200톤의 수출량과 10억원



의 소득 창출이 예상된다. 고창 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고 서해안 해풍을 맞으며 자라 껍질이 얇고 과육이 연하며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인기를 끌어들었다.

2008년도부터 수출을 추진하여 지금

까지 미국,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하며 한국 배의 위상을 높였다. 최근 올해 2월 대만에서 고창배 관측 행사를 열었을 당시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배영농조합 심정식 대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고창배가 전 세계 각지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창 배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품질의 고창배를 미주 지역에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며 "고창군 대표 수출품목인 배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초산동 유창아파트 인도정비 등 조성완료

정읍시가 사업이 우선인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지역 실현을 목표로 보행 친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 30억원으로 시내권 7개소와 시외권 2개소 공사를 완료했다. 이 중 4억원을 투입해 호남고사거리~유창아파트 800m의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자전거도로 구간은 황토포장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대로(35-40m)의 인도와 녹지공간을 조정해 노상주차장 56면(일반37, 사선17, 장애인2)을 설치했다.

이번 공사는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근 20여개 상가 주인과 관계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했다. 또한 인근 주민대표(통장)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공사를 시행해 많은 호응



를 받았다. 더불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3억원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